

노동인구 감소로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농가들

오사카지사

외국인 노동력 의존율이 높은 일본 농가들

- NHK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빌려야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이바라키현(29.64%), 가가와현(19.20%), 나가노현(17.32%) 순이다.

20~30대 농업종사자 중 외국인 비율

행정구역	외국인 농업종사자 의존율*
이바라키현	29.6%
가가와현	19.2%
나가노현	17.3%
군마현	13.3%
에히메현	3.8%
아마가타현	0.6%

* 2015년 일본 국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NHK)

외국인 없이는 재배가 어려운 이바라키현

- 이바라키현은 일본에서 농업생산량 9년 연속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표적인 농업지로 손꼽힌다. 주요 특산물은 청경채, 미즈나(水菜, 겨자과 채소), 피망 등이며 '수도권의 부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도쿄 상점 중에서 이바라키현의 채소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 하지만 이제 외국인 농업종사자 없이는 이러한 명성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농업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의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특히 코마쓰나(한자, 녹황색 채소)의 경우 현재 재배농가 한 곳당 5~6명의 중국, 베트남 출신 실습생들이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배작물까지 바꾸게 하는 노동력 부족현상

- 일본에서 가장 많은 멜론을 생산하고 있는 이바라키현 호코타시에서는 최근 특산물인 멜론 재배를 중단하고 코마쓰나 등의 엽채소로 주요 작물을 전환하는 농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600호에 달했던 호코타시의 멜론농가가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코마쓰나 재배농가는 5년 사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바라키현의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

(단위 : 명)

	합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0년	91,566	1,431	2,882	5,090	14,342	25,922	31,203	10,696
2015년	76,821	1,100	2,856	3,879	8,632	24,938	24,250	11,166

출처 : 일본 관동농정국 2015~2016년 이바라키농림수산통계연보

- 호코타시의 한 가족경영 멜론농가는 14년 전부터 고령이 된 부모님을 대신하여 외국인 실습생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젊은 실습생으로 인해 작업은 수월해졌지만, 1년에 1회만 수확하는 멜론 때문에 매달 실습생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제법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 농가에서는 결국 멜론 재배를 포기하고 연간 재배가 가능한 엽채소로 작물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실습생을 6명까지 늘리고 경지면적도 2.5배가량 증가하여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도쿄 로컬푸드를 활용한 Tokyo Bistro SCOP의 요리

도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농업인구 감소현상

- 농업인구 감소는 지방뿐만 아니라 도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의 농업취업인구는 2005년 16,344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10,986명으로 30% 이상이 감소했다.
- 일본 니테레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아카사카에 문을 연 레스토랑 Tokyo Bistro SCOP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쿄 내 농가에서 직접 채소를 매입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채소 본연의 맛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지원 필요

- 현재 일본에서는 농가의 인력부족 현상을 외국인 실습생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종사자의 노령화와 40세 미만 경영주농가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젊은 청년들이 귀농을 하더라도 땅, 집, 기술, 연고가 없어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농촌 여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NHK 온라인「外国人」依存「ニッポン」(www.nhk.or.jp, www.nhk.or.jp)
 일본 관동농정국 2015~2016년 이바라키농림수산통계연보 (www.maff.go.jp)
 일본 니테레뉴스24「농가 응원 레스토랑」(www.news24.jp)